



한전공대(가칭)의 설립과 관련해 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전 공대 Big Picture를 꿈꾼다'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세계최고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BIXPO '한전공대 포럼'서 설립 밀그림 제시

광주·전남 최대 관심사인 한전공대(가칭)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밀그림이 나왔다.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 대학으로서 독립형 캠퍼스로 조성되며 글로벌에너지연구소를 갖추고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개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국전력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BIXPO)의 특별세션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포럼'을 열고 이러한 설립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유일무이, 한전공대 빅 픽처(Big Picture)를 꿈꾼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 포럼에서는 공대설립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기사 3·10면>

이날 포럼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해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기정 전 의원, 청와대, 국무총리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대 설립 밀그림을 그리기 위해 6개월 동안 세계 각국의 공과대학을 벤치마킹했다”며 “오늘 포럼은 특정 주제와 방향을 정해 놓고 토론을 하는 건 아니다. 학부·학과 구성을 비롯해, 교육중심 대학이나 산학

학부·대학원 독립형 캠퍼스 에너지밸리 근접성 교통 등 고려 입지 결정

중심 대학이나를 놓고 토의 하는 소중함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전발표에 나선 김태근 한전공대 설립 TF팀 부장은 “한전공대는 독립형 캠퍼스로 조성해야 하고,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를 갖추고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개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어 “한전공대는 전력과 에너지에 특화된 대학으로, 기초과학·실용기술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캠퍼스 형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세계적 대학들의 경우 인재의 집중과 풍부한 자원, 적절한 지배구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대학 성장을 고려해 난양공대와 울진공대 같은 독립형 캠퍼스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인 한전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철도와 공항 등 교통인프라는 물론, 부지 매입비용과 에너지밸리 근접성 등이 고려돼야 한

다는 게 한전 TF팀의 생각이다.

또 한전공대는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개교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글로벌화와 세계적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학부와 함께 대학원도 동시에 개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이어 “설립 초기에는 과감한 투자로 세계적인 인적·물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며 “학생들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전공대 안에 글로벌에너지 연구소 등 연구센터를 설립, 산학연클러스터 조성과 한전 R&D(연구·개발) 등 인프라와 결합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의 코어센터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기술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한전은 이날 발표한 기본방향과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한전 공대 설립은 현재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총괄·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과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한전 공대 설립 비용을 5000억원 정도로 예측한다. 부지는 150만㎡ 규모로 2020년까지 설립한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채용비리 한파’...바짝 움츠린 광주·전남 공공기관

市·道 팀꾸려 특별점검

경찰도 대대적 수사 나서

광주 23곳 전남 67곳 감사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 한파’가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149개 지방공기업과 67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각 특별점검 대책 본부를 꾸리고, 경찰도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관가 분위기도 잔뜩 움츠러들었다.

사실상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선출직 단체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온다 지방위원들의 인사청탁도 심심찮게 불거졌다는 점에서 각 공공기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반면, 이번 기회에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 잡자는 각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일 “시의 5개 지방공사와 공단, 18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광주시 23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2013년 1월부터 2017년까지의 모든 채용 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채용 업무 부적절 처리 여부 등을 포함한 인사·채용 업무 전반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감사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특별본부 내 총 20명 내외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청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정

감사팀을 꾸려 전남도 19곳, 전남 22개 시·군 48개 등 모두 67곳에 대해 지난 5년간 인사 채용 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에 착수한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최근 5년간의 채용 현황과 과정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도 채용비리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공공기관 94곳에 대한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진·보직 이동, 근무성적 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의 과정에 있어 급품수수, 급품수수에 상응하는 불법 특혜 제공행위, 승진·보직·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 때 특정인을 우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또 시험 문제·평가 기준·경쟁자 정보 등의 유출행위, 각종 인사 문서와 전자기록 허위작성, 인사·채용과 관련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간공원 1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착수

민관거버넌스, 접근성·스카이라인 유지 등 협상안 마련

12개 제안서 심의 돌입...늦어도 내년 초에 사업자 결정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인 수량·마륵·송암·봉산공원의 사업자가 내년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거버넌스(이하 민관거버넌스)는 1일 제5차 회의에서 우선협상자와의 협상 기준을 스카이라인 유지, 시민접근성, 장애인접근성, 비공원시설 면적 등으로 결정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상기준에 20층 이하 고도 제한, 비공원 개발 면적의 대폭 축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정되면 2순위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돼 있어 최종 사업자 결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미 제출된 1단계 12개 제안서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시민심사단을 구성,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별도의 협상단이 이번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성 향상 기준’을 근거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단축하기로 했으며, 행정절차, 심의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원 별 사업자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단에는 도시계획, 조경, 건축 등 전문가 이외에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기준을 비공개로 했다. 또 광주시는 협상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에 나서고 공원의 기능, 전체 경관 등의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도 전면 재조정된다. 당초 광주시는 중앙공원 등 6개 공원을 2단계 사업대상으로 했으나 나머지 21개 도시공원 가운데 해제, 공공 조성, 민간조성 등 원칙적으로 대상과 사

업 방향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관거버넌스는 다음주에 공원조성소위원회, 그 후 전체 회의를 거쳐 2단계 사업대상 공원과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정지침을 적용하고, ‘공원 일몰제 대비 광주시 민원구도입’이 제출한 21개 공원 조성 방향을 참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광주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과거보다 진전된 방안”이라며 “2단계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탄™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십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키온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십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